

우승 문턱서 허벅지 부상 ... 울어버린 안세영



안세영이 25일(한국시간) 덴마크 옌센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덴마크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와 경기 도중 부상으로 코트에 엎드려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오픈 여 단식 결승 기권패

광주 출신 한국 배드민턴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덴마크오픈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벅지를 다쳐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24일 덴마크 옌센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덴마크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1-2(21-18 23-25 5-16)로 패했다.

안세영이 먼저 1세트를 따냈지만 2세트를 듀스 점전 끝에 아마구치에게 내준 것이 뼈아팠다.

이어진 3세트에서 5-16으로 끌려가던 안세영은 허벅지 부상을 당해 경기를 포기했다.

이어 치러진 여자 복식 결승에서도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가 중국의 황동평-정위에게 0-2(15-21 17-21)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안세영은 도쿄올림픽에서 '셔플록 미래'라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비록 8강전에서 천적 천위페이(중국)에게 패했으나 무릎이 깨지면서 코트에서 사투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풍암초 1학년 때 라켓을 처음 잡은 이후 5학년 때는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대회 여자 단식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중학교 1학년까지 3년 연속이 대회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광주체육중 3학년 때 정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대표팀에 발탁돼 천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전국장애인체전 광주 7위·전남 10위 선전

광주, 역대 최다메달·최고점수 ... 전남, 순위 4계단 올라

광주-전남 선수단이 25일 폐막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각각 7위, 10위에 오르는 등 선전했다.

광주 선수단은 역대 최다메달, 최고점수, 최고 순위라는 수확을 거뒀고,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종합순위를 4계단 끌어올리며 약진했다.

광주는 금메달 59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39개 등 모두 170개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는 체점체계가 바뀐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이래 처음으로 종합득점 10만8203점을 따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실업팀의 지원을 받아 단체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 개인종목 위주로 구성된 광주시가 종합득점 10만점 이상을 획득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펜싱(종합순위 2위), 배구(2위)와 보치아·양궁(3위)을 비롯해 육상, 탁구 종목이 광주시 성적을 크게 끌어올렸다.

김근수는 사격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단체전에서 한국신기록 2개,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 2개를 세우면서 4관왕에 올랐다. 정현경이 역도 -46kg 급에서 3개, 정지승이 -66

kg 1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정봉기가 수영자유형 50m S2(선수부)에서 54초 45로 한국신기록, 김육금은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전남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39개 등 모두 116개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8만6089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지난해 종합 14위를 기록했었다.

박영순(덕수학교)은 육상 여자 1500m에서 5분 21초64로 한국신기록을 수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미욱은 원반·창·포환던지기에서 5년 연속 3관왕의 금지탑을 세웠다.

전남 직장운동경기부 축구(뇌성)는 2연패를 달성했고 이미욱(한진KPS)은 육상 3관왕에 올랐다. 정선정(대신기공)은 당구 여자 BIW 2관왕을 차지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2023년 목포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합 5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인선수 발굴과 우수선수 영입을 통해 전남장애인체육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IA, 롯데·두산·키움과 시즌 마지막 4경기

T 타이거즈 전망대 27·28일 사직 원정 뒤 홈 2연전 KIA에 따라 5강 구도 바뀔수도

'호랑이 군단'이 끝까지 발톱을 세운다.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다.

3주 연속 더블헤더 포함 7연전 일정을 소화했던 KIA는 모처럼 26일까지 이를 연속 휴식을 취한 뒤 27·28일 사직으로 건너간다.

KIA는 롯데지연츠와의 2연전에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29일 두산베어스, 3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갖고 2021시즌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올 시즌 승보다 패를 많이 기록하면서 9위가 확정됐지만, KIA에는 여전히 시선이 쏠린다. 남은 4경기에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있다.

일단 KIA와 롯데는 '가을잔치'와는 상관없는 팀이 됐지만 '신인왕'을 놓고 경쟁 중이다.

독보적인 신인왕 후보였던 이의리가 부상으로 빠진 사이 롯데 2년 차 투수 최준용이 거침없는 기

세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의리가 지난 21일 한화전을 통해 복귀전을 갖고 신인왕 굳히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물집' 때문에 등판이 무산됐다. 그리고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엔트리에서 말소, 올림픽 대표팀 활약까지 펼친 화려한 프로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

최준용의 시즌은 아직 진행 중이다. KIA를 상대로 등판에 나서게 될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안방에서의 마지막 두 경기에 결과에 따라서는 5강 대진표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라이온즈와 KT위즈가 1위를 놓고 살 떨리는 경쟁을 하는 가운데 4·5위 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위 두산, 5위 SSG 그리고 공동 6위 NC-키움 이 1.5경기 차에서 전쟁 같은 한 주를 보내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산, 키움과의 맞대결을 앞둔 KIA가 '5강' 구도를 바꿀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눈길 끄는 경기를 펼치게 된 KIA, 두 외국인 투수와 황대인에 시선이 간다.

KBO리그에 첫선을 보인 멧넌과 다카하시가 올 시즌 마지막 등판을 앞두고 있다.

멧넌은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고, 예리함도 떨어

졌다. 뒤늦게 합류한 다카하시는 24일 NC전에서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기도 했지만 수비 약점을 다시 한번 노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두 선수 모두 '이닝'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만큼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내년 시즌 KIA의 외국인 선수 구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아쉬움 속에서도 황대인은 올 시즌 소득이 됐다. 지난 16일 프로 7번째 시즌 만에 처음 두 자릿수 홈런을 넘겼고, 이어 팀 승리를 부르는 스리런을 연달아 쏘아 올렸다.

장타 고민에 빠진 KIA에 단비가 된 황대인은 현재 12개의 홈런으로 최형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남은 경기에서도 황대인이 한방을 보여주면 서 기본 종계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홀드왕' 장현식은 남은 경기에서 자신의 기록이자 타이거즈 기록 경신에 나서게 된다.

장현식은 지난 23일 '천정' NC를 상대로 34번째 홀드를 수확하면서 KT 주권을 7개 차로 따돌리고 홀드왕 싸움을 마무리했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홀드왕에 이름을 남긴 장현식은 개인은 물론 팀 최다 홀드 기록 보유자다. 남은 경기에서 기록되는 홀드는 신기록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대 축구부 '2021 대학축구 U리그' 7권역 우승

왕중왕전 진출 확정

광주대 축구부가 '2021 대학축구 U리그' 7권역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통산 네 번째 권역 우승이다.

광주대는 최근 끝난 동강대와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10승 3무 1패(승점 33점)의 전적으로 7권역 1위를 차지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1 U리그'에는 역대 최다인 85개 팀이 참가해 1권역에서 11 권역까지 나뉘 경쟁을 벌였다.

광주-전북 지역 대학이 참가한 7권역에서는 광주대를 비롯해 우석대와 전주대, 호남대, 원광대, 한일장신대, 군장대, 동강대가 우승을 다했다.

광주대는 이번 우승으로 왕중왕전 진출도 확정했다. 상위 32개팀이 참가하는 왕중왕전은 내달 12일부터 영덕에서 진행된다.

이승원 광주대 축구부 감독은 "올해 3월 전국대회인 춘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에 왕중왕전 우승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며 "선수들의 프로팀 진출로 전력이 공백이 있지만 체력과 조직, 전술훈련을 통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총장베이스볼클럽,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

3경기 연속 콜드승

총장베이스볼클럽(총장BC)이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을 차지했다.

총장BC는 최근 함평야구장에서 끝난 제25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겸 2021년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3경기 연속 콜드승을 장식하면서 정상에 올랐다.

대회 첫날 진흥중을 18-3, 5회 콜드로 제압한 총장BC는 무등중과의 대결에서도 15-3, 5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마지막 동성중과의 경기도 7-0, 5회 콜드승으로 마무리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윤우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우수투수상, 타격상, 최다타점상도 총장BC가 차지했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이윤우(총장BC) ▲우수투수상 : 김민상(총장BC) ▲타격상 : 최상훈(9타수 8안타-0.888·총장BC) ▲최다타점상 박예찬(3개·진흥중) ▲최다타점상 : 장우찬(7타점·총장BC) ▲감투상 : 허지웅(동성중) ▲미기상 : 이도훈(동성중) ▲감독상 : 나길남(총장BC 감독) ▲지도상 : 오동원(총장BC 부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